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 새벽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주일말씀 주제>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
그다음에 <잠언>을 전해 줘야 된다.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
<주제>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그에 해당되게’ 깨닫는다.

* 설교자는 <잠언>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
잠언을 한 절,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

1.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굳건하고 확실하게 믿어진다.
2. 사람은 마음이 약하니, 어느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실히 믿다가도, 기도를 안 해서 신앙의 차원이 낮아지면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달리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해 주신 것은 확실하니 절대 믿고, 그와 같이 이 시대에 행하신 섭리역사도 믿고 시인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절대로 믿다가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섭리사인가?’ 하게 된다. 이전의 처음 사랑을 굳건하게 하고, 그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5.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성경역사도, 현실의 섭리역사도 하나의 사람의 역사로 생각하게 된다. 기도하여 영계를 가 보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6. 영계에 가면, 근본의 것을 보게 된다. 집안에 들어가면 ‘집이구나.’ 하고 믿어지고, 기계의 속을 보면 ‘이런 구조의 기계구나.’ 하고 믿어지듯이, 영계 속에 들어가면 근본의 것을 보고 믿게 된다.
7. 보이는 세계는 겉 세계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속세계다. 허무함이 없는 실체 영들의 세계다. 영원한 세계다.
8. 자기가 믿고 확신하다가도, 생각을 잘못하면 그 생각에 따라 의심하게 된다.
9. 혼자 생각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변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기 때문이다.
10. 자기 생각을 성령과 주의 생각으로 온전하게 다스리기다.
11. 자기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없이 크지 못한다.
12. 생각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며 크다. 그 상대는 하늘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고, 땅에서는 주와 사람들이다.

13. 성령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물어라. 그래야, 절대자 하나님의 일을 알고 확실하게 믿게 된다.
14.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도, 어느 때는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행했나?’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 이리저리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15. 매일 배우고, 알고, 믿어라.
16. 안 배우면, 의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한한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 배워라.
17.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 매일 배우고, 그 노선을 따라 기도하여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기가 아는 대로 인도해 주신다.
18. 주가 먼저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와서 하나님께 받은 ‘시대 말씀’을 전해 주고, 그 시대가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이끌어 준다. 오직 주만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니, 그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행여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다가 말게 되고, 생각하다가 말게 된다.
19. 주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믿지 않으면, 저마다 믿음을 굳게 해도 자기 위치에서 믿고 살게 된다.

20. 그리스도에게 붙는 자가 휴거되고, 그에 따라 휴거 차원도 높이가 된다.